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엘살바도르 라우니온항 운영권 입찰 의회 승인	2
□ 필리핀 ICTSI, 그리스 피레우스 및 테살로니카항 관심	3
□ 브라질, 마나우스항만 사업 운영자 선정 계획	4
□ 충청시, '12.5' 기간동안 항만물동량 2억톤, 컨테이너 700만TEU 달성 추진	5

1) 연락처: 김찬호 전문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전문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전문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전해경 연구원(☎ 02-2105-2982, saeii@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엘살바도르 라우니온항 운영권 입찰 의회 승인

- 엘살바도르 입법의회(legislative assembly) 라우니온(La Unión)항에 대한 운영권 입찰¹⁾을 정식으로 승인
 - 이에 따라 국가 항만위원회인 CEPA(Comisión Ejecutiva Portuaria Autónoma)는 항만 운영권을 민간운영업체에 30년간 양도할 계획이며, 2012년 1분기에 입찰서류를 발부할 예정임
 - 금번 승인은 조건부로, 운영권을 확보하는 업체는 운영 첫 5년간 항만 인프라, 장비 및 유지보수에 최소 3,00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어야 함
- 엘살바도르는 라우니온항을 메가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1단계는 컨테이너 처리에 초점을 맞출 예정
 - 라우니온항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1단계 완공 후 85만 TEU, 2단계, 3단계 완공 후에는 170만 TEU로 증가될 전망임
- 라우니온항은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동쪽으로 철도와 도로로 각각 252km와 185km 떨어져 있으며,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와의 국경지역인 폰세카만(Gulf of Fonseca)과 범중미개발계획으로 불리는 푸에블라-파나마(Plan Puebla Panama) 계획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
 - 라우니온항 및 대서양 연안의 코르테즈(Cortez), 토마스 데 카스티야(Tomas de Castilla), 바리오스(Barrios)항을 연결하는 육상 운하건설이 가능하며 개발 완료시 중미의 허브항이 될 전망임

< 엘살바도르 위치 >



< 라우니온(La Unión)항 위치 >



자료: www.porttechnology.org, 2011.09.16; www.puertolaunion.gob.sv.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지난해 6월 라우니온항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허방식을 둘러싼 공방으로 운영이 지체되었으나 항만의 정상가동을 위해 올해 3월 말 양허법안이 제출됨.



KMI 국제물류위클리

□ 필리핀 ICTSI, 그리스 피레우스 및 테살로니카항 관심

- 필리핀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가 그리스의 피레우스 및 테살로니카항 투자에 관심을 표명
 - ICTSI의 Enrique K. Razon 회장은 해외투자를 위해 현금으로 미화 5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이 그리스 피레우스 및 테살로니카항이라고 포브스 CEO 컨퍼런스에서 밝힘
 - Razon 회장은 그리스의 부채상환 및 지불능력 보유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자산의 매각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찌감치 경매대에 오르고 싶다고 하였음
 - 폭탄세일(fire sale)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그리스의 정부자산 매각은 피레우스항의 정부지분 74%와 테살로니카항의 지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항만 노동자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음
 - 피레우스항의 2010년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은 약 68만 TEU이며, 테살로니카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음

< 그리스 피레우스 및 테살로니카항 물동량 현황 >

단위 : TEU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피레우스	1,403,408	1,373,138	433,582	664,895	684,900
테살로니카	343,727	447,211	238,940	270,181	-
합계	1,747,135	1,820,349	672,522	935,076	-

자료 : CI online

- Razon 회장의 이러한 언급 이후, ICSTI의 재무담당자는 '아직까지 그리스 정부에 이러한 제안을 하거나 매각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Razon 회장의 발언은 그리스 정부가 항만을 매각할 경우에 대비한 ICTSI의 가능한 대응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힘
- 한편, ICTSI는 2011년 들어 미국의 포틀랜드 항만, 멕시코의 물류시설, 인도 및 동유럽 항만 등에 투자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ICSTI Africa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확장하고 있음

※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103호 참조

자료 : business.inquirer.net, 2011.09.13; www.pse.com.ph, 2011.09.14;
www.portstrategy.com, 2011.09.22.

송주미 전문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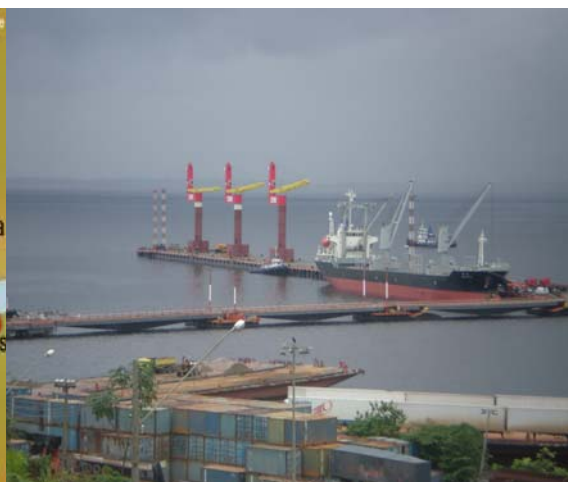
□ 브라질, 마나우스항만 사업 운영자 선정 계획

- 브라질 특별항만부(Special Ports Department)는 약 8억 7,100만 달러 규모의 마나우스(Manaus)항 운영권 입찰계획을 발표
 - 마나우스항 제2항만의 운영기간은 25년이며, 추가로 25년간 추가 가능함
 - 마나우스항 프로젝트는 브라질 국영 항만 중 첫 민간 양도 프로젝트로, 이르면 2012년 초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2010년 약 142만 달러 규모의 마나우스 제2항만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입찰이 공시되었으나 입찰신청 기간이 2011년 2분기로 연기되었다가 또 다시 2012년으로 연기됨
- 마나우스는 아마존강 중류의 항구도시로 브라질 유일의 자유무역항이자 중요한 상업 활동 요충지
 - 마나우스항은 브라질 국내 최대 내륙항이자 국내 물류거점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쪽으로 진출이 용이함
- 현재 마나우스항에는 두 개의 '컨' 터미널이 있으며, 앞으로 항만의 처리능력을 확대할 계획
 - Chibatão와 Super '컨' 터미널은 리오 네그로(Rio Negro)에 위치하며 연간 35만 TEU를 처리함
 - 마나우스항의 수심은 14m이며, 두 터미널 모두 내륙 물류운송의 중요 통로 역할을 담당함

< 마나우스(Manaus)항 위치 >



< 마나우스(Manaus)항 전경 >



자료: www.bnamerica.com, 2011.08.26; www.portstrategy.com, 2011.09.01.

전혜경 연구원(☎ 02-2105-2982, saei@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충칭시, '12·5' 기간동안 항만물동량 2억톤, 컨테이너 700만TEU 달성 추진

- 충칭시(重慶市)는 쓰촨성(四川省)의 성도이며 서부대개발의 중심도시로 중국 서부경제권을 견인
 - 서부대개발은 중국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50년에 완성될 예정임
 - 충칭시는 청두(成都), 시안(西安)과 더불어 서부대개발의 핵심지역으로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및 물류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음
 - 또한 충칭시는 장강수운을 이용 가능한 최상류 지역으로 춘탄(寸灘)터미널, 지우룽퍼(九龍坡) 터미널 등을 통해 바지를 이용하여 상하이항에서 환적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은 오토바이, DVE, 모니터, TV 등이며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전세계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충칭시는 '12·5' 기간동안 항만물동량을 2억톤, 컨테이너 처리량을 700만 TEU로 증가시킬 계획
 - 충칭시 교통관리위원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항만, 물류, 산업'을 결합하여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항만을 건설할 계획임
 - 주청과위엔(主城果園), 동항(東港), 완저우신티엔(萬州新田), 푸링룽토우산(涪陵龍頭山) 등 8개의 지역에 대규모 항만물류단지를 건설할 계획임
 - 또한 항만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고 중국 및 외국 대형해운기업과의 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서부지역 화물 환적기지, 도매화물거래센터를 건설하여 항만 물동량을 향상시킬 계획임
 - 충칭시는 개방형 여객부두, 특송화물부두, 공공부두 등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12·5' 기간동안 충칭시 자체물량을 화물 7,000만 톤, 컨테이너 500만 TEU로 증대시킬 계획임

자료 : 신화망(新華網), 2011.09.

이주호 전문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
 강지현 연구원(☎ 02-2105-2967, jhkang0813@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